

열왕기하 16. 유다 왕 '아하스'의 악정 (왕하 16 장 1-20)

들어가기

본 장은 유다 제 12 대 왕 '아하스'의 통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왕은 '다윗' 왕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비교적 훌륭한 왕으로 평가 받았지만, '아하스' 왕은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우상숭배에 앞장서며 유다 역사 속에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은 아람을 대적하기 위해 앗수르를 의지했고, 우상숭배를 위해 사용된 제단을 직접 제작하고 성전 기물들을 임의대로 파손하여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1.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서론적 평가 (1-4 절)

1) 유다 제 11 대 왕인 '요담'의 아들로 20 세에 왕이 되어 16 년간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 '아하스'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혹은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의미!

➤ 참고: '아하스' 왕과 동시대를 살았던 주변국 왕들

①. 북이스라엘 = 18 대 '베가' 왕(B.C. 752-732)과 19 대 '호세아' 왕(B.C. 732-723)

=> 당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 직전으로 향하고 있었음!

②. 아람 = '르신' 왕이 통치 =>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

=> B.C 732 년 앗수르에 의해 멸망 당함!

③. 앗수르 = '디글랏 빌레셀' 3 세(B.C. 744-727)가 통치

=>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아람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점령하기 시작함!

=> B.C 722 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

- 곧 당시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음!!

-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만 했던 시대였음!!!

2) 그러나 '아하스' 왕은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했고,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인 '아사랴(웃시야)'왕과 아버지인 '요담' 왕은 나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자 노력했음!

- 참고로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 = 산당 제사를 용인하고 성전제사를 소홀히 한 것!

3) 특별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기 보다는 우상숭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함!

- 우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 =>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킨 말!

-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의 아이를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관습들이 있었음!

- ex: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전쟁/ 모압 왕은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바침! (왕하 3)

-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가나안의 풍속을 결코 따라 하지

못하도록 미리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금지시켰음!!

- 레 18:21,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 ②.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림!

2.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략을 받은 ‘아하스’ 왕 (5-9 절)

- 1) ‘요담’ 왕 때부터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또다시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5-6 절)
 - 참고로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
 - 왕하 15:37, ‘그 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 이때 아버지 ‘요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연합군들을 물리쳤으나, ‘아하스’ 왕은 그러지 못했음!
 - 그 결과 아람은 ‘엘랏’을 빼앗아 아람의 영토로 만들고, 유다 사람들을 쫓아냄!
- 참고: ‘엘랏’
 - ①. 원래는 에돔에 속한 항구 도시 (홍해를 통해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통로)
 - ②.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뒤 엘랏과 그 인근 에시온게벨을 유다 땅으로 만듦. (삼하 8:13,14)
 - ③. ‘솔로몬’은 이곳에서 선박을 제조하고 무역업을 시작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함. (왕상 9:26)
 - ④. 이스라엘이 분열된 뒤, ‘여호람’이 유다를 통치할 때 에돔에 빼앗김. (왕하 8:20-22)
 - ⑤. 그로부터 최소 100 년이 지난 ‘아사랴(웃시야)’ 왕 때 다시 유다로 회복됨. (왕하 14:21, 22)
 - ⑥. 그런데 ‘아사랴(웃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 때 아람에게 잠깐 빼앗겼다가 아람이 앗수르에 멸망되면서 앗수르가 무너질 때까지 앗수르 땅이 됨.
- 2) 아무튼 이때 ‘아하스’ 왕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예물과 함께 사자를 보내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7-8 절)
 - 7 절 주목. ‘...,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 곧 스스로 앗수르 왕의 아들이고 신하라고 자칭하며 구원해 달라고 요청!
 - 이때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공간에 있는 은, 금’을 앗수르 왕에게 바침!
 -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
- 3) 앗수르 왕은 ‘아하스’의 청을 받아들여 즉시 아람을 공격해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9 절)
 - 결과적으로만 보면 아람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하려 한 ‘아하스’ 왕의 계약은 성공한 것!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이를 계기로 앗수르를 유다로 끌어들이고, 예루살렘을 우상숭배의 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됨!

3.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우상숭배의 제단을 쌓은 ‘아하스’ 왕 (10-20 절)

- 1) ‘아하스’ 왕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히 그를 예방하기 위해 다메섹을 방문하였습니다.

- 이때 ‘아하스’는 다메섹에 세워진 우상숭배를 위한 큰 제단을 보게 됨!
-> 그럼 이 제단은 어느 나라의 우상숭배를 위한 제단일까? _____

➤ 참고: 앓수르의 주요 우상들

- 아드람멜렉: 해의 신 // 아남멜렉: 달의 신 (왕하 17:31)
- 네르갈: 사자 - 전쟁과 사냥의 행운, 재앙들을 지배하는 신 (왕하 17:30)
- 아시마: 염소 - 다산의 신 (왕하 17:30)
- 납하스: 개 // 다르닥: 나귀 - 어둠의 영웅 (왕하 17:31)
- 니스록: 큰 독수리 - 전쟁, 보는 신 (예견) (왕하 19:37).
- 므로닥: 물의 신 (렘 50:2) / 바벨론도 같이 섬김
- 느보: 문학과 과학의 신 (사 46:1). / 바벨론도 같이 섬김
- 당시 다메섹을 방문한 ‘아하스’ 왕은 승리를 자축하며 이런 앓수르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작한 거대한 제단을 보고 크게 감동하게 됨!
- 그래서 그 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그대로 그리게 한 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즉시 보내어 제작하도록 명령함!!

2) ‘아하스’ 왕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 ‘우리야’는 왕이 돌아오기 전까지 전해 받은 양식대로 신속하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 이 같은 ‘우리야’의 행동은 ‘아사랴(웃시아)’때의 대제사장이던 ‘아사랴’와 크게 대조됨!
 - 당시 대제사장 ‘아사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며 함부로 제사를 드리려는 ‘웃시아’ 왕을 목숨을 걸고 막아 섬! (대하 26:17)
 - 그러나 ‘우리야’는 그저 왕의 눈치만 보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타락한 제사장이 됨!

3)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하스’ 왕은 오자마자 새 제단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 ①. 성전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를 새 제단에서 드리도록 명령!
 - 왕의 모든 번제물과 소제물, 전제물 + 백성의 모든 번제물, 소제물, 전제물
 - 성전에서 드리는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
 - 그리고 모든 제물의 피도 이 단 위에 뿌리도록 함
 => 그러나 이런 제사 형식은 결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이 아님!!
- ②.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맘대로 옮기고, 변형하여 새 제단을 꾸미는 것으로 사용함!
 - 이때 낫 제단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쓸 것이라며 그대로 둠!!
- ③. 앓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식일에 성전으로 향하는 전용통로를 막고 장막을 거둠!!

4) ‘아하스’ 왕과 관련된 다른 일들은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고, 그가 죽자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대 왕이 되었습니다.

4.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들이 있다면?

5. 중보기도 나눔